

챔피언 선 '슈퍼 루키'... 김도영의 시즌이 시작됐다

1군 캠프 합류 수비·타격 훈련
"기쁘고 새로워. 빨리 적응해
게임 흐름 바꾸는 선수 되고파"

'슈퍼루키' 김도영의 2022시즌이 시작됐다. 지난 28일 휴식일을 보냈던 KIA 타이거즈가 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스프링캠프 훈련을 이어갔다. 이날 경기장에는 반가운 새 얼굴이 등장했다. 코로나 이슈로 캠프 참가가 미뤄졌던 '루키' 김도영이 마침내 1군 캠프에 합류한 것이다.

지난 마무리캠프에서는 어깨 부상으로 1군 합류가 불발됐던 만큼 김도영에게는 첫 1군 훈련.

1군 첫날부터 라이브훈련이 진행되면서 김도영은 두 외국인 선수 로니와 놀린의 공을 지켜보고 직접 타격도 해봤다.

선배들은 김도영이 타석에 들어서자 '슈퍼루키'라고 외치며 시선을 집중했고, 공을 때려내자 감탄을 하기도 했다.

기다렸던 날을 맞은 김도영은 "올라오고 싶었던 1군에 합류해 너무 기쁘고 새롭다. 빨리 적응해야 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라이브를 해보니)확실히 힘도 있고, 변화구 수준도 높고 새로웠다"며 "적응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 보는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들 보면서 경험을 쌓겠다"고 이야기했다.

김도영의 등장으로 이날 유격수 자리에도 눈길이 쏠렸다. 김도영은 수비 롤모델로 언급했던 박찬호와 같은 조에서 훈련했다.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KIA 캠프의 관전포인트가 늘었다.

김도영은 "박찬호 선배가 친절하게 많이 말씀해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했다"며 "확실히 프로는



1일 1군 스프링캠프 선수단에 합류한 KIA 김도영이 챔피언스필드에서 라이브 훈련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비 훈련을 하는 모습.

프로라는 걸 느꼈다.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TV에서 수비를 보면 화려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안정감이 많이 느껴지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타격적인 부분에서는 선배들의 '타이밍'에 놀랐다. 차분하게 새로 시작하겠다는 각오지만 앞서 KIA 윤도현을 비롯해 프로 첫 캠프를 치르고 있는 각 팀의 신인 선수들이 조명을 받아 마음이 조금하기도 했다.

김도영은 "천천히 하고 조금해지자 말라고 말씀 많이 해주셔서 마음 편하게 먹고 2군에서 준비를 했다"면서도 "불안하기보다는 마음이 급한 게 있었

다. 그래도 팀 동료인 도현이가 잘되면 저도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차분하게 2군에서 시즌을 준비하면서 몸도 키우고 수비 실력도 더했다.

김도영은 "저는 못 느끼겠는데 주위에서 다 살폈냐고 물어보고 몸이 커졌다고 말씀하신다. 사실 5kg 쯤다가 합류해서 2kg 빠졌다. 쉬고 나왔는데 (인바디 수치)가 더 좋아져 놀랐다"며 "2군에서 박기남 코치님이 수비도 많이 신경 써주셨다. 스스로 뭔가가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 부족하지만 수비 부문에서 보완이 됐다. 포구, 스텝 등이 좋아졌다"고 언급했다.



빠른 발은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 하지만 높은 프로 무대에서 특급 주루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다. 부상을 경계해야 하고, 빠른 발을 활용한 내야 안타 생산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타격도 필요하다.

김도영은 "주변에서 항상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신다. 주루 플레이할 때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막상 시합 들어가면 잘 안 된다. 그래서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때 중요한 시합이 있으면 일단 출루하는 게 1번 타자로서 목표였기 때문에 윈스트라이크, 노스트라이크 카운트 때든 안 좋은 공에도 손이 나가고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걸 신경 써서 보완하고 투나쌍에만 발 빠른 걸 생각하면서 출루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작은 늦었지만 개막을 위한 준비 시간은 충분하다. 김도영은 부담감 대신 책임감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선수가 되겠다는 각오다.

김도영은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을 많이 받아서 부담 같은 건 솔직히 안 된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게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게 목표, 꿈이다. 개막 엔트리에 들어서 어느 포지션이든 많은 경기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임성재

고진영, 싱가포르서 2022시즌 첫 대회 나서

LPGA HSBC 챔피언십

김효주·김세영·이정은 등 출전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사진)이 싱가포르에서 2022시즌 첫 대회에 나선다.

고진영은 3일부터 나흘간 싱가포르 센토라 골프 클럽 뉴 타종 코스(파72·6749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총상금 170만달러)에 출전한다.

2021시즌 최종전인 11월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이후 고진영이 3개월여 만에 출전하는 공식 대회다.

고진영은 LPGA 투어 2022시즌 개막 이후 1~2월 3개 대회를 건너뛰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서 담금질을 이어오다 아시아에서의 시즌 시작을 택했다.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으로 삼금왕 3연패를 달성하고 올해의 선수도 차지해 2021시즌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고진영은 당시엔 세계랭킹 2위였지만, 경기에 나서지 않은 사이 1위를 탈환해 2022시즌을 시작한다.

1위를 달리던 경쟁자 넬리 코다(미국)가 이번 시즌 3개 대회에서 모두 주춤하면서 고진영이 올라섰다.

고진영은 이번 대회 나흘 모두 60대 타수를 치면



투어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작년 10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71타를 쳐 연속 행진이 타이거투어 14라운드에서 끊겼고, 이후 다시 11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를 기록 중이다.

또 한 명의 주목받는 선수는 타이틀 방어에 나선 김효주다.

김효주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마지막 날 보기 없이 버디만 8개 쓸어 담으며 역전 우승을 차지, LPGA 투어 대회에서 5년 3개월 만에 정상에 오르며 '천재의 부활'을 알렸다.

김효주 역시 이번 대회가 시즌 첫 출전이다.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은 김효주를 비롯해 여러 한국 선수가 우승의 기쁨을 맛본 대회이기도 하다.

2019년 박성현, 2015년과 2017년엔 박인비,

LPGA 투어 15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를 작성, 이 부문 신기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는 지난해 14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를 쳐 2005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2017년 유소연(32)이 세운 LPGA

2016년 장하나, 2009년 신지애가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한국인 역대 챔피언 중 김효주 외에 박성현과 박인비도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다른 한국 선수로는 김세영, 유소연, 이정은, 전인지 등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3개 대회 우승자인 개막전 대니엘 강(미국·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 리디아 고(뉴질랜드·게인브리지 LPGA), 리오나 매코이어(아일랜드·드라이브 온 챔피언십)도 이번 대회에 모두 출격해 시즌 다승을 노린다.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 이후 한 달 만에 열리는 LPGA 투어 대회인 이 대회엔 66명이 출전해 나흘 간 첫 탈락 없이 겨룬다.

/연합뉴스

광주FC 헤이스 2라운드 MVP

K리그2



'멀티골'로 광주FC의 2022시즌 첫 승을 이끈 헤이스(사진)가 2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8일 하나원큐 K리그 2 2022 2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광주의 외국인 선수 헤이스가 MVP의 영예를 안았다.

헤이스는 지난 2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전반 28분 페널티킥을 얻어낸 뒤 직접 키커로 나서 시즌 첫 골을 장식했다.

이어 전반 44분에는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멀티골을 장식했다.

광주는 헤이스의 골을 끝까지 지켜 2-0 승리를 거뒀고, 이정효 감독은 데뷔승을 기록했다.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경기 흐름을 이끈 이순민과 무실점 승리를 완성한 박현빈은 각각 미드필더와 수비수 부문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2라운드 베스트 팀은 경남FC가 됐다.

경남은 27일 밀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산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0-2로 뒤진 후반 35분 타진 모재현의 골을 시작으로 윌리안, 에르난데스의 연속 골로 짜릿한 3-2 역전승을 거뒀다.

경남이 10분 만에 대역전극을 연출한 이날 경기는 베스트 매치에도 선정됐다.

/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임성재, PGA 투어에서 드라이버샷 4위

1위 윤람·2위 캐머런 영·3위 미첼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네 번째로 드라이버를 잘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재는 1일 현재 PGA투어 2021-2022시즌 티샷 부문 스트로크 게인드(SG)에서 0.711타를 찍어 이 부문 4위에 올랐다.

티샷 부문 SG는 드라이버 능력을 따지는 지수다. 비거리와 방향성이다 같이 좋아야 한다. 이 부문 4위는 드라이버를 네 번째로 잘 친다는 뜻이다.

임성재는 장타 부문 58위(평균 304.6야드)에 페어웨이 안착률 27위(66.47%)를 기록, 비거리도 크게 모자라지 않으면서 상당히 정확한 드라이버샷을 구사했다.

임성재는 아이언샷이 정확해 '아이언맨'으로 불렸지만, 이번 시즌에는 드라이버도 잘 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1위는 세계랭킹 1위 윤람(스페인)이 차지했다. 람은 티샷 SG가 무려 1.227타를 기록했다. 0.837타의 2위 캐머런 영(미국)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람은 장타 부문 3위(평균 316.6야드)의 폭발적 비거리를 지니고도 페어웨이 안착률 63.8%(50위)의 안정적인 티샷을 날렸다.

SG 0.793타의 키스 미첼(미국)이 3위에 올랐다. 패트릭 캔틀레이(미국),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루크 리스트, 콜린 모리카와(이상 미국), 코리 코너스(캐나다), 라이언 파머(미국) 등이 티샷 SG 10위 이내에 이름을 올렸다.

이 기록을 기사화한 골프위크는 "대부분 선수가 2021-2022시즌 4~6개 대회를 치렀기에 기록이 이제는 선수 경기력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큼 축적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